

# 현대시에 나타나는 도시 이미지의 반영 의식\*

— 1990년대 이후의 시와 그로테스크 시학을 중심으로 —

김 홍 진 (한남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목시록적 세계와 반성적 성찰 |
| 2. 도시문명의 불모성과 부정적 지각 | 5. 맺음말             |
| 3. 물신욕망의 타락과 비판적 인식  |                    |

## 국문초록

본고는 그로테스크 시학을 도시문명의 병리적 현상과 부정성에 연관하여 고찰하였다. 요컨대 90년대 이후 도시 이미지의 반영과 시적 재현에 나타나는 의식 양상을 그로테스크 시학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그로테스크는 현실의 모순과 추악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로테스크의 관점을 통한 부정적 도시 이미지의 시적 반영은 문명 현실에 대한 비판적 폭로와 반성적 성찰의 행위이다. 본고는 이것을 기존질서의 위반, 정상성의 해체, 지배적 현실원칙의 전복을 통한 새로운 세계 전망의 시적 전략으로 이해하였다.

탈근대 도시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를 재현하는 그로테스크 시는 시적 주체가 도시문명의 화려한 외관과 유토피아적 환상 안에 갇든 디스토피아적 전

\* 이 논문은 2017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망, 죽음과 공포, 불길한 욕망과 불안, 소외와 억압, 반인간주의와 사물화에 대한 절망과 좌절 의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록적 세계인식은 곧 도시문명의 부정성을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극복을 모색하려는 저항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문명을 묵시록적 세계로 지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시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탈근대의 도시문명에 대한 그로테스크한 시적 인식과 반영은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원칙의 이데올로기와 삶의 지배적 양식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비판, 부정과 반성을 가능케 한다. 이것은 현실원칙과 기존질서의 정상성에 대한 비판과 저항, 위반과 전복, 도발과 위악의 상상력을 동반하면서 지금 이곳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지각과 비판적 인식을 통한 또 다른 전망을 내다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온성은 도시문명을 지배하는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의 부정적 지각과 비판적 인식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그로테스크, 탈근대, 도시문명, 부정적 지각, 물신욕망, 묵시록적 세계, 반성적 성찰

## 1. 머리말

현대의 삶은 대부분 문명화된 대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 즉 “도시화 또는 도시문명의 체험 증대는 한국 현대 사회와 시의 역사적 변화에 주요한 지표”<sup>1)</sup>로 기능한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 다시피 한국문학은 도시문명이 불러온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문학적 적응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주요한 문학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쓰이고 있

1) 서준섭, 「한국현대시와 자본주의」, 『감각의 뒤편』, 문학과지성사, 1995, 186면.

다. 근대의 도시화는 우리 삶의 지형을 급격하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도시문명은 근대적 삶과 제도, 체제와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 논리와 삶의 방식에 반응하는 시인들의 의식변화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사회는 식민근대와 파행적 산업 근대화의 파시스트적 속도전을 치르며 빠르게 탈근대의 후기산업사회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화에 대한 시인들의 의식은 불온하고 비판적이며, 그 도발성과 위악성으로 말미암아 병리적이기까지 하다. 그들은 그곳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매끄럽고 안락한 이미지, 현란하고 매혹적인 기호에 현혹당하기보다는 투시적 상상력을 통해 그 이면에 은폐된 불길한 욕망과 공포와 불안, 분열과 소외, 억압과 죽음을 응시한다. 이러한 불길한 세목들은 근대 도시문명이 불가피하게 불러온 결과일 것이다. 때문에 시인들은 그 불길한 징후와 증상을 처리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로테스크(grotesque) 미학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술미학의 한 범주인 그로테스크는 추(醜)의 미를 구체적이며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효과적이며 전략적인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로테스크, 특히 시와 관련한 일련의 논의<sup>2)</sup>를 통해 일반적인 개념적 정의를 압축하면 첫째, 이질적 요소의 혼합과 변형, 왜곡과 과장을 기본원리로 하는데, 인간의 육체를 주요 요소로 다룬다. 둘째, 그로테스크는 미적 긴장과 갈등의 이해결이며, 이것은 수용의 차원에서 공포와 웃음, 혐오와 매혹의 양면성을 갖는다. 셋째, 시적 기능의 차원에서 그로테스크는 불쾌한 진실과의 대면과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체험하게 한다. 넷째, 현실원칙이 강제하는 정상성에 대한 충격과 금기과파라는 위반을 통해 기존의 가치체계나 질서를 전복하고, 현실세계의 혼돈상을 시적 형상화를 통해 총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특성을 갖는다. 요컨대 그로테스크는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을 통해 낯선

2) 필립 톰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 조셉 칠더스·게리 헨치,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 카를 로젠크란츠, 조정식 역, 『추의 미학』, 나남, 2008. ; 몸문화연구소, 『그로테스크의 몸』, 쿠북, 2010. ; 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역,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 이창우,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최건형 역, 『프랑스와 라블레의 작품과 중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4.

충격과 공포를 유발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일그러진 형상, 파괴, 해체, 변형, 과장 등의 실제적 방법을 동원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탈근대의 세계에서 그로테스크 미학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적 일상의 현실에 깃든 ‘현대성의 무의식’<sup>3)</sup>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가능케 하는 방법론적 사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도시문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로테스크의 시들은 삶의 조건과 과정, 또는 현실 세계의 지배 논리와 구조, 질서와 체제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시인들은 탈근대의 도시가 품은 모순을 인류 문명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조감하면서 근본모순의 문제를 숙고한다. 그들은 정상이란 이름으로 치장한 도시문명의 급소를 발견하기 위해 삶을 지배하는 현실원칙에 탄죽을 걸며, 그 정상성을 기형적이며 비정상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태도는 문명에 대한 부정적 지각, 비판적 인식, 반성적 성찰을 동반하면서 도시문명의 그늘에서 몸살을 앓는 자의식을 형성하는 요인과 계기로 작용한다.

본고는 우리 사회가 후기산업사회라는 탈근대적 사회로 본격 진입하기 시작하는 90년대 이후 시인들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한 방법으로 그로테스크 시학을 도시문명의 병리적 현상과 부정성에 연관하여 고찰한다.<sup>4)</sup> 요컨대 본고는 탈근대성이 사회·정치·문화적 지형을 전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시인들의 반응 방식과 의식 양상을

3) 앙리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사, 1990, 172면.

4) 본고의 논제와 관련해 한국 현대시 작품을 그로테스크 시학에 근거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로테스크를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미학으로 보는 경우(조용복, 「공포체험의 시적 변용과 그로테스크의 시」, 남송우·하상일 편, 『고석규 문학의 재조명』, 세종출판사, 2000. ; 박슬기, 「한국 전후시의 그로테스크 시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004.), 작가론적 관점에서 그로테스크 시학을 다룬 연구(이윤숙, 「이상 시의 변형세계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고은숙,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4. ; 전영주, 「한국 현대시의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 논문, 2002.), 아방가르드 계열의 시를 그로테스크 시학의 관점으로 풀이한 사례(김용직, 「극렬시학의 세계-이상론」, 『현대시』, 1992, 6-8. ; 강경희, 「1930년대 현대시의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 논문, 2005.) 등이 대표적이다.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적 장치의 하나가 그로테스크 시학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그로테스크는 결국 추의 미학을 통해 세계를 새롭게 변형시키려는 해체의 전략을 담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존 현실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강력한 부정과 비판정신을 표나게 드러내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로테스크는 현실의 모순과 추악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려는 유효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시인들은 모순과 부조리, 불안과 공포, 소외와 분열로 가득한 탈근대 도시문명의 불모적이며 묵시록적 세계의 부정성을 포착해낸다. 이는 저항의 정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의 대안 명제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모색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그로테스크 시학을 통한 도시 이미지의 반영과 시적 재현이 진닌 의식 양상을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도시문명에 대한 그로테스크 미학의 수사적 전략이 갖는 문학적 함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90년대 이후의 주요 시인의 시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시학의 형식적 특성과 의의를 도시문명이 주체를 변형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며, 도시문명에 대한 인식론적 공포와 그에 대한 대항의 영역에 주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다. 결국 그로테스크 시는 시적 주체가 도시문명의 화려한 외관과 유토피아적 환상 안에 갇든 디스토피아적 전망, 죽음과 공포, 불길한 욕망과 불안, 소외와 억압, 반인간주의와 사물화에 대한 절망과 좌절 의식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록적 세계인식은 곧 도시문명의 부정성을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극복을 모색하는 방법론적 인식이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2. 도시문명의 불모성과 부정적 지각

도시문명의 공간에서 시인들은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해 반성적인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간이다. 그들은 문명의 도시적 일상이 은폐하고 있는 불안, 분열, 공포, 죽음, 욕망, 소외, 억압 등이 작동하는 기제를 예각적

으로 투시하고 부정하면서 그곳으로부터 탈주하거나 본래적인 삶을 회복하려는 정신적 고투를 벌인다. 그 한 표현 방법이 그로테스크에 의한 부정한 세계의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도시 시인들의 의식은 현실원칙과 질서가 지배하는 안락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문명의 외관에 깃든 불길한 파멸의 징후를 투시한다. 그들은 비판적이며 불온한 태도, 비판적이며 불길한 시선으로 세계의 부정성을 직시한다. 이들은 “세계의 불행을 인식하는 데서 예술은 자신의 행복을 갖는다.”<sup>5)</sup>는 표현처럼 불우하고 불모적인 세계의 실상을 예민하게 지각한다.

무너아를 넣고 보니 산모는 /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 저 굴뚝들과 간통한 게 분명해! / 자궁 속에 고무인형을 끼워온 듯 / 무너아를 넣고 산모는 /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 정수리 털을 하루종일 뽑아낸다.(최승호, 「공장지대」 전문)

끔찍하며 괴기스럽게 공장지대를 형상화한 최승호의 인용 시는 ‘산모’와 ‘공장지대’, ‘배꼽’과 ‘비닐끈’, ‘자궁’과 ‘고무인형’이라는 이질적인 대립소들이 병치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상호 이질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개체가 되게 함으로써 익히 알려진 것을 낯설게 지각케 하여 보편적으로 승인된 규범들을 무효화하고 전도시킨다.<sup>6)</sup>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의 물질적 가치와 물질적 풍요가 대량으로 생산되는 현장인 공장지대가 본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추악한 기형의 세계를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통해 드러내 전율스런 시적 반향을 일으킨다. 산모, 배꼽, 자궁 등이 직접 암시하는 신성한 생명의 생산성은 문명의 산물인 불길한 대립소들과 이질적으로 혼합 병치되면서 몸은 공장의 굴뚝과 간통한 형국이다. 그 결과 무너아를 넣고, 젖은 “허연 폐수”처럼 흐른다. 문명의 종국을 보는 듯하며, 예측 가능한 디스토피

5) T. W.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4, 36면 참조.

6) 필립 톰슨, 김영무 역, 앞의 책, 81~82면 참조.

아 상을 보는 듯하다.

인류 문명의 폐해가 중국에 이르렀을 때 인류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다는 인식은 이 시에서 매우 깊이 작용하고 있다. 화자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의 혼합과 일상적 질서와 현실원칙의 지배적 정상성을 해체하는 그로테스크한 상상력을 통해 도시문명이 이면에 감춘 부정성을 전경화한다. 화자는 문명이 건설한 공장지대를 통해 진정한 인간 삶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전개되는 산업도시의 부정성과 모순을 불길한 시선으로 관찰한다. 화자의 그로테스크한 관찰과 시적 묘사는 문명 전체 혹은 지구라는 유기적 생명 공동체 전반을 조감하는 행위이면서 동시에 비판적 의식으로 근본 모순의 문제를 숙고하는 반성적 성찰의 행위이다. 이는 곧 문명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부정이며 비판이라는 저항적 전언을 내포한다.

분홍고양이가 나타났다 / 어디 어디 /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를 향해 / 사람들이 일제히 거수경례를 할 때 / 노점상의 과일은 시들고 / 보도 블록 밑 하수구는 끓어오르고 // ...중략...// 분홍고양이가 태어난다  
여기저기 / 검은 비닐 봉지를 찢고 / 플라스틱 뚜껑을 열고 / 깔깔깔 웃음을 입에 문 채 기어나오면 // 어느 곳의 집들이 갈라지고 / 강철구름 재빨리 어디로 날아내리나 / 랄라 랄라 비명이 되어 / 가슴마다 십자가로 꽂히는 건 누구의 노래인가 // 분홍고양이가 버려진다 사방팔방 / 찢겨진 약속들, 은밀히 살해된 주검들이 / 집집마다 문 밖에 쌓여가고 / 세상의 모든 쓰레기통들이 넘친다 / 악취들이 세상을 들어올린다 // 분홍빛은 악몽의 빛깔 / 썩지 않는 꿈들이 피워 올리는 향기 / 괜찮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는 마 / 쓰레기통은 은밀하고 아름다운 성전(김형술, 「분홍고양이」 중에서)

김형술의 인용 시는 분홍빛 외관이 품은 부패한 문명의 풍경과 자본주의적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어둡고 황량하며 추악한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화자는 물신이 지배하는 도시의 암울함과 절망감을 부패와 죽음의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통해 부조한다. 즉 “분홍고양이가 나타”난 “도시의 가장 높은 건물 꼭대기”로 상징되는 문명에 대한 대중들의 맹목적 숭배와 “노점상의

과일은 시들고 / 보도 블록 밑 하수구는 끓어오르”는 죽음과 부패의 이미지를 병치시킴으로써 분홍빛의 화려함 뒤에 숨은 도시문명의 추악함에 대한 비판적 저의를 드러낸다. 이를테면 이러한 상상력은 보들레르의 「고양이들」에 대해서 구조주의자들이 ‘문명’과 ‘자연’의 대립을 ‘높음’과 ‘낮음’으로 변주하는 분석을 연상시킨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용 시도 이러한 대립 구도를 통해 문명의 화려함을 추악함으로 변주함으로써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 미학을 구현한다.

화자는 화려함과 추악함의 대립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은 분홍고양이가 보랏빛 저녁노을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과 “검은 비닐 봉지를 찢고 / 플라스틱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 깔깔한 웃음을 입에 문 채 기어나오”는 현실의 음산하고 기괴한 장면을 대립 병치시킴으로써 도시의 부정성을 부각한다. 이러한 대립 구도 속에서 펼쳐지는 이미지의 병치는 “은밀히 살해된 주검들이 / 집집마다 문 밖에 쌓여가”고 “세상의 모든 쓰레기통이 넘”치며 “악취들이 세상을 들어올린다”는 진술에서 그로테스크한 시적 발상은 절정에 달해 도시문명의 화려함이 감춘 추악함을 극단적으로 환기한다.

도시문명의 욕망이 품은 추악함은 분홍빛을 “악몽의 빛깔”로 규정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분홍은 보통 감각적으로 부드럽고 온화하며 매혹적이고 황홀한 여성적 느낌을 주는 색깔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긍정적 느낌의 분홍을 “악몽의 빛깔”로 규정함으로써 도시문명의 풍요롭고 화려한 외관이 품은 불길한 부정성을 극대화한다. “악몽의 빛깔”은 인간의 “씩지 않는 꿈들”이 피워 올린 향기, 즉 쓰레기통의 악취이다. 그러나 도시는 “날마다 부활하”여 “하늘 가득 뒤엉킨 시간들을” 물들이는 분홍빛을 “은밀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숭배한다. 이때 분홍빛은 쓰레기와 등가를 이루면서 종말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불길하고 추악한 재앙의 빛깔로 치환된다. 그럼으로써 “악몽의 빛깔”을 상징하는 분홍이 환기하는 이미지는 재앙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 참으로 감쪽같이 해치웠다. 벌써 하수구에 / 쏟아버렸을 군

은 핏덩어리처럼 / 뇌리에 엉켜드는, 共犯인 내 죄의식조차 / 말끔히 씻어내  
 준 / 이 놀라운 마취의 文明, 그런데…… 이놈의 / 파리떼는 무슨 비릿비릿  
 한 냄새라도 맡은 것일까? / 한여름 생선가게에 누런 알을 슬기 위해 / 왕  
 왕거리며 몰켜들던 파리떼처럼 / 혹 주검의 냄새를? // (문득 나, 불경스레,  
 미동도 않는 그녀의 가슴에 크으쿵, 코를 대본다……) // 쫓고 또 쫓아도, 악  
 착같이 몰켜드는 파리떼!(고진하, 「파리떼」 중에서)

고진하의 인용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한 여자의 몸에서 생  
 명을 낙태시킨 ‘共犯’으로 등장한다. 낙태를 한 여자는 마취에 빠져 “고통에  
 찬 신음도 없이, 죽은 듯, 깊이 잠”든 상황이다. 화자인 나는 그런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주근깨처럼 달라붙는 파리떼를 쫓고 있”는 중이다. 죽음과 부  
 패에 기생해 사는 ‘파리떼’의 출현은 곧바로 생명 탄생의 분만실을 죽음의  
 분위기로 뒤덮어버리고, 오히려 분만실은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공간으로 변  
 한다. “참으로 갑작같이” 한 생명을 “하수구에 / 쏟아버”린 공범으로서 화자  
 의 죄의식이나 고통은 “놀라운 마취의 文明”이 “말끔히 씻어내준”다. 그런데  
 마취된 죄의식을 되살려 괴롭히는 것은 갑자기 날아든 ‘파리떼’이다. 생명을  
 굶어낸 몸에서 주검의 냄새를 맡고 날아드는 ‘파리떼’의 출현은 화자가 지위  
 버린 죄의식을 자꾸 일깨운다. 그럼으로써 분만실은 죽음을 내장한 끔찍한  
 풍경으로 변형된다.

시인은 생명이 탄생하는 분만실 안으로 갑자기 날아든 ‘파리떼’를 통해 일  
 상적 삶의 영역에 내재한 불길한 죽음의 공포를 환기한다. “쫓고 또 쫓아도,  
 악착같이 몰켜드는 파리떼”는 “마취의 文明” 속에서 환각에 취한 채 안락한  
 의식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방해한다. 이처럼 화자는 문명의 외피가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불온성과 추악함을 그로테스크하고 섬뜩하게 들춰내 독자에게  
 부정의 미적 인식을 매개한다. 여기에서 문명은 죽음의 부정성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다. 마치 마취가 생명을 죽인 죄의식이나 고통을 말끔히 잊  
 게 하는 것처럼 문명은 현실 세계의 화려한 이면에 숨은 불온한 죽음의 부  
 정성을 잊게 하는 환각제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시하는 것이다.

도시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는 자연스러운 삶과 생명의 조화로운 운행 질서가 왜곡되거나 상실되어버린 상태를 암시한다.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세계의 공포와 죽음, 분열과 소외, 결핍과 상실, 불임과 불모의 문명 현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실의 부정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행위이다. 결국 도시문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문명사적 맥락에서 근대적 욕망이 파생한 생명의 위기, 분열과 소외의 부조리하고 모순적 상황을 부정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 명제를 모색하고자 하는 시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시문명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의지는 자연스럽게 비판적 인식을 매개한 것이기도 하다.

### 3. 물신욕망의 타락과 비판적 인식

아우라가 사라진 도시문명의 현실에서 기호와 이미지 가치가 지배하는 소비사회의 풍경은 익숙한 것이다. 상품의 효용성이나 사용가치보다는 기호와 이미지 자체의 상징가치가 우세한 소비사회의 현실에서 일상인의 욕망은 화려하고 풍요로운 물신의 매혹에 무력하다. 우리의 현실은 “소비가 생활 전체를 사로잡고 있으며” 소비를 위해서 “환경은 전면적으로 조절되고 정비되어”<sup>7)</sup> 있다. 지시대상과 분리된 채 부유하는 현란한 기표들의 매혹, 풍요와 행복의 고흥적인 공격으로부터 현대인의 욕망은 무기력하다. 지시대상을 잃고 떠도는 기표의 현란한 이미지들은 자유와 행복, 풍요와 유토피아의 황금시대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 그것들은 기표가 기표를 낳고 또 낳는 자기증식을 거듭하며 욕망을 조작한다. 도시의 시인들은 이러한 소비 도시의 물질과 패션, 기호의 풍요로움과 현란함에 깃든 물신욕망의 확대 재생산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바라보며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한다.

7) 장 보드리야르, 이상을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18면.

나뭇가지에서 마른 잎들 떨어져 / 부랑아처럼 뒹굴고 쓰레기통 걷어차며 /  
 분통 터뜨리는 어둠 속 악다구니에서 / 오래된 종자의 힘이 느껴진다 / 극  
 장 입구 무리 지어 걸어 나오는 유령들 / 소실점처럼 아득히 꺼진 눈빛으로 /  
 담배를 피우며 이미지에 취해 / 맥 빠진 몸을 흐느적흐느적 저으며 / 3을  
 향해 가고 있다(장경린, 『재개발지역 2』 중에서)

장경린의 인용 시는 도시의 물신욕망과 삶의 양식을 낫설고 이질적이며, 기괴하고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추하고 기형적인 풍경으로 번역하고 있다. 화자는 효용성이 다해 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황량함에서 새로운 욕망의 재창출을 그로테스크하게 바라본다. 재개발이라는 욕망충족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된 지역에서 “이미지에 취해”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순환의 고리를 건조한 어조로 그로테스크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계효용이 체감하고 욕망의 한계충족이 체감함에 따라 욕망이 더욱 새롭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괴기스러운 시적 수사를 통해 형상화한다. 이러한 시적 수사는 마치 “속에 무엇인가 꽉 차서 / 텅 비어 보이는 9”처럼 인간의 욕망이란 충족될 수 없이 결핍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욕망충족의 순환에 비례해서 그 충족의 가치율은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 화자는 이러한 결핍과 충족의 순환 고리가 단축되는 욕망의 생태를 비감하며 괴기스러운 시선으로 조망한다. 화자는 “꽉 차서 / 텅 비어 보이는” 것에서 낡은 욕망의 폐기와 새로운 욕망의 확대 재생산을 바라보는데, 화자가 바라보는 ‘재개발지역’은 꽉 차서 한계를 다한 텅 빈 ‘9’이며, 그 거리는 “마른 잎들”이 떨어져 “부랑아처럼 뒹굴고” “어둠 속 악다구니에서” “쓰레기통을 걷어차”는 삭막하고 황폐한 형상이다. 그 속의 사람들은 ‘9’처럼 꽉 찼지만 텅 비어 있는 결핍의 풍요와 환(幻)에 취해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유령’처럼 괴기스러운 형상을 하고 있다. 그들은 속이 텅 빈 풍요와 거짓 욕망으로 “이미지에 취해” “소실점처럼 아득히 꺼”져 간다. 화자는 이것을 “이미지에 취”한 환각의 현실로 인식한다. 그것은 결국 부정되어야 할 세계이

며, 그 속에 매몰되어 의식을 마비 당한 채 그것이 거깃된 세계인 것조차 망각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미지에 취해” 의식을 마비 당한 채 유령처럼 환의 세계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과 조작된 욕망으로 이루어진 현실이 허상임을 비감하게 형상화한다.

무엇이든 입속으로 들어오면 / 무조건 빨고 깨물고 질경대는 당신의 /  
무의식에 시동을 건 나는 / 이제 당신이 기계적으로 씹는 대로 씹히면서 /  
황홀한 자본의 오르가즘을 향해 치닫는 / 단물 빠진 질기디 질긴 창녀가 다  
되었다 / 결코 삼킬 수 없는 그 천박성 때문에 / 아니, 나도 당신의 그 캄캄  
한 / 욕망의 목울대를 넘볼 용의는 없지만, / 말로 오입하듯이 수다와 잠담  
의 대응으로 즐기다가 / 射精하듯 뱉, 뱉어버리는 일을 두고 / 그 어떤 짐승  
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 반추 없는 되새김질이라고 혀를 차며 간다(이덕규,  
「자일리톨 껌」 중에서)

그로테스크는 문명의 뒷면에 숨어서 우글거리는 추악한 것들을 불러내 인간성과 문명의 가려진 단면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그로테스크는 이처럼 문명과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폐된 것들과 관계한다. 이것은 문명의 금기를 위반하면서 인간성의 이면을 폭로하는 전략이다. 이덕규의 인용 시는 천박한 물신욕망의 타락을 냉소적으로 응시한다. 혐오스럽고 추한 성애묘사, 천박한 욕망, 분비물과 점액질의 미끈거리는 촉감으로 인해 역겹고 불쾌한 감정을 유발한다. 왜냐하면 고상하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 생식기관, 비속하고 육체적인 것은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sup>8)</sup> 화자는 이를테면 정신적인 것을 물질과 육체적 차원으로 전락시켜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감각을 맛보게 한다.

감각적인 언어적 기교와 성적 상상력을 통해 상품이 주는 매혹과 쾌락을 도발적으로 보여주는 인용 시는 무의식에 작동하는 인간 욕망의 진경을 보

8) 필립 톰슨, 김영무 역, 앞의 책, 87면 참조.

카를 로렌크란츠, 조정식 옮김, 『추의 미학』, 나남, 2008, 324~325면 참조.

여준다. 화자는 조작된 욕망의 세계에서 “황홀한 자본의 오르가슴”을 경험한다. 화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껌을 씹는 무의식적 행위를 “빨고 깨물고” “씹는” 추한 성적 행위로 ‘격하시키고 저속화하며 육화(肉化)<sup>9)</sup>된 이미지로 치환한다. 이 같은 추하고 불결한 성적 행위는 ‘오르가슴’, ‘창녀’, ‘오입’, ‘사정’ 등의 추하고 불결하며 천박한 성애적인 표현을 통해 자본의 상품논리와 거기에 무반성적으로 사로잡힌 욕망의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상품논리와 상업적 책략이 감춘 허구성을 추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며, 체제의 문법이 갖는 천박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 시의 이러한 의미 자질을 일상에 편재한 무의식적 욕망에서 길어 올린다. 욕망의 생태를 통해 화자는 인간의 탐욕적인 실존을 확인하고 자본의 상업적 책략, 그 “현란한 허굴림에 놀아나”는 욕망의 작동을 냉소적이며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이다.

부연하면, 껌을 씹는 행위는 무의식적 행위이다. 그런데 화자는 그러한 무의식적 행위를 추한 성적 행위로 특수화함으로써 그 행위의 부정성을 비판적으로 환기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품의 무의식적 소비가 내포한 부정성 자체가 아니다. 이 시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그것에 길들여져 도취된 의식과 상업적 책략에 점령된 무의식적 욕망, 그것에 의한 소비 행태의 물신적 일차원성이다. 이 시의 문제성은 입 속에 껌을 넣고 씹는 무의식적이며 ‘기계적’인 반복 행위와 성적 욕망의 ‘오르가슴’을 연상해 겹쳐 놓는 데 있다. “자일리톨 껌”이라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환기하는 일정한 연상작용과 성적 행위를 겹쳐 놓음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속에 길들여진 관성화된 우리의 의식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화자는 물신의 욕망에 대한 독특한 독법을 통해 상품이 강요하는 타율성과 상품의 논리가 유포한 욕망의 질서 속에서 맹목의 상태로 반성하지 않는 의식을 반성한다. 화자는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소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도시적 일상의 욕망을 그로테스크하게 굴절시켜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절대성과 환상을 위반하고 전복하는 것이다.

9)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 최건형 역, 앞의 책, 49면.

눈여겨 보지 마. 난 아무 것도 감추지 않았어. 유통기한 지난 젤리처럼 아무도 모르게 상해가고 있을 뿐이야. 나를 쫓아다니는 CC-TV도 이제 그만 꺼줘. 언제부터 이 쇼핑몰을 맴돌고 있는 건지 나도 잊어버렸어. 퓨즈가 나가버린 머리를 달고 나 고장난 장난감처럼 같은 곳만 맴돌고 있어. …중략… 쇼핑몰의 여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고 매장 안에도 다른 음악을 틀어 봐. 도돌이표 가득한 네 소절 단음, 이제 더 이상 났을 스텝도 없어.(김경인, 「쇼핑몰의 여자」 중에서)

도시에서 백화점과 같은 쇼핑몰은 지배적인 일상의 세목이다. 그것은 소비의 쾌감을 보장하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며, 욕망을 실현하는 공간이다. 소비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회형태에서 쇼핑몰이라는 소비의 조합된 양식에 의해 인간 생활이 연쇄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욕망의 충족에 이르는 확실한 통로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소비 창출의 욕망 조작 메커니즘은 일상생활의 그물망과 더불어 잘 조직되어 있다. 그 대표적 공간이 쇼핑몰이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소비활동의 종합을 실현”하는데, 그 “소비활동의 대개는 쇼핑”<sup>10)</sup>이다. 그 공간은 심리조작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그물에 포획된 일상인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용 시는 잘 보여준다.

인용 시는 거대한 물신의 신전에 감금된 “쇼핑몰의 여자”를 통해 현실 소비사회의 극단적인 인간 소외의 초상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는 “쇼핑몰의 여자”와 진열된 ‘마네킨’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녀는 진열대 위의 ‘마네킨’처럼 “언제부터 이 쇼핑몰을 맴돌고 있는 건지” 잊어버렸으며, “퓨즈가 나가버린 머리를 달고” “고장난 장난감처럼 같은 곳만 맴돌고 있”다. 화자인 ‘나’에게 주체적 보행은 허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쇼핑몰의 소비적 충동과 달콤한 유혹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곳은 소비의 감옥이며 “더 이상 났을 스텝”이 허용되지 않는 “도돌이표”로 반복되는 기계적 일상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곳은 “가도 가도 출구가 안 보이는”

10) 장 보드리야르, 이상률 옮김, 앞의 책, 16~18면 참조.

미로이며 감옥이다.

주지하다시피 그로테스크는 우스움과 섬뜩함을 동시에 포함한다. 섬뜩함과 우스움은 서로 대립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공존한다.<sup>11)</sup> 화자는 쇼핑몰은 일상생활의 주재자가 되었고, 그곳에서의 인간은 몰주체적이며 비개성적임을 우스꽝스러운 동시에 섬뜩하게 환기한다. 이때 우스꽝스러운 희극성이란 인간이 기계로 전락한 현상에서 유발된다.<sup>12)</sup> 인간이 지나치게 기계를 닮으면 우습다는 것인데, 이는 화자 자신을 ‘마네킨’과 동일시한다는 차원에서 섬뜩한 느낌을 준다. 말하자면 기계가 지나치게 인간을 닮으면 섬뜩하다(언캐니 밸리)는 측면에서 그로테스크한 감정을 유발한다.

화자는 쇼핑몰이라는 풍요로운 신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비롯한 일상인들이 주체적 개성을 거세당한 채 물신 욕망에 포획 감금된 상황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준다. 화자가 보기에 쇼핑몰이라는 풍요로운 신전 안에서 어떠한 일상인도 예의 물신의 무릎 아래 엎드린 노예와 같은 것이다. 그 신전 앞에서 일상적 삶은 가혹하고 그 높은 측정할 수 없는 깊이로 욕망의 끈을 잡아 끈다. 그 안에서 인간의 주체성은 보장할 수 없다. 다만 ‘마네킨’과 같이 화려한 패션으로 치장한 허상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일상은 일상적이지 않으며 불길하고 공포적이다. 화자는 정상성이 숨긴 이면을 그로테스크한 수법을 통해 충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일상이 숨긴 타락한 욕망의 악마성을 경험케 한다.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에서 도시는 물질적 쾌락을 보장하는 조건이며, 도시체험의 기본적 국면이다. 자본주의 상품미학의 전시장인 도시의 거리나 백화점은 새로운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이들 공간은 도시적 삶의 풍요로움과 물질적 풍요의 신화를 보장해주는 기호로 작용한다. 그러나 도시공간에서 미적 체험의 주체는 상품의 황홀한 유혹에 매혹당하면서도 물신욕망의 매혹적 타락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양가적인 자이다.<sup>13)</sup>

11) 미하일 바흐진, 이덕형·최건형 역, 앞의 책, 74면 참조.

12) 블라지미르 브로브,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 2010, 107면.

13) 발터 벤야민, 이태동 역,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대하여』, 『문예비평과 이론』

따라서 그로테스크한 도시체험의 확대와 시적 재현은 역설적으로 왜곡된 현대성으로부터 삶의 진정성을 찾으려는 반성적 성찰이기도 하다.

#### 4. 목시록적 세계와 반성적 성찰

자본주의의 도시문명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분열을 낳고 있다. 그 속에 자리한 시적 자아에게 경험되는 세계는 매우 낮은 것이며 혼란스러운 수밖에 없다. “오늘날 목시록적 상황의 집약적 상징이 도시”<sup>14)</sup>로 나타나는데, 시인들은 그것을 그로테스크의 방법으로 절실하게 드러낸다. 왜냐하면 그로테스크는 세계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서 비롯하는 것<sup>15)</sup>이기 때문이다. 그로테스크의 시적 기능이 불쾌한 진실과의 대면과 관련하여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체험하게 하는 충격과 금기과파라는 위반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 체계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내포한다고 할 때, 그로테스크는 현실 세계의 혼돈상과 타락상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은 꿈치들이 뻘뻘한 통조림 속에 / 머리를 내밀고 있는 느낌이었  
다 / 불쾌했다 / 내 안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었따 / 나는 손을  
들어 파리를 쫓았다 / 그 동작이 늑 수렁에 빠져 살려고 버둥거리는 / 허우  
적거림으로 비쳤을지 모르겠다 / 죽음에 둘러싸여 / 무력했지만 파리 쫓을  
힘은 있었다 / 빌딩을 오르내리는 날개 없는 요일들 /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

문예출판사, 1987, 237면.

- 14) 남진우, 「목시록적 시대의 글쓰기」, 『신성한 숲』, 민음사, 1995, 61면.

목시록적 상상력은 존재의 불안과 공포, 자아와 세계의 분열, 소외와 상실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현대문명의 착락적인 흥분과 소외, 공포와 불안의 세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저항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목시록적 상상력은 다양한 시간의 범주들이 일으키는 부정형의 혼돈을 감지하고 맞서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보편적 욕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 15) 미하일 바흐친, 이덕형 · 최건형 역, 앞의 책, 520~521면 참조.

고 있었다 / 올라가도 거대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듯 / 함몰과 큰 추락에  
대한 공포에 나는 떨고 있었다(최승호, 「엘리베이터 속의 파리」 중에서)

세속도시의 이면에서 도시문명의 부정적 폐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묵시록적 상상력을 통해 그로테스크하게 형상화하는 인용 시에서 화자가 투시하고 있는 것은 “죽음만이 살아 있는” 풍경이다. 화자는 엘리베이터라는 도시적 일상의 공간을 불길한 죽음을 내장한 묵시록적 공포의 풍경으로 제시한다. 즉 일상의 공간 속으로 갑자기 날아든 파리를 통해 일상의 영역에 내재한 죽음의 불길한 공포를 환기한다. 부패와 죽음에 기생해 사는 파리의 기분 나쁜 이미지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라는 일상의 공간을 그로테스크한 죽음의 이미지로 뒤덮어버린다. 즉 파리가 날아들자 일상의 공간은 “내 안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죽은 썩치들이 뻑뻑한 통조림 속”이 된다. 죽음의 냄새를 맡고 날아든 파리를 쫓는 동작이 “늪수렁에 빠져 살려고 버둥거리는” 함몰의 이미지와 “올라가도 거대한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추락의 공포로 전도되는 현실은 구원의 가능성을 상실한 묵시록적 세계를 보여준다.

엘리베이터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적 삶을 보장하는 일상의 소품이다. 이러한 엘리베이터로 상징되는 문명의 도시는 추락과 함몰의 공포를 이면에 거느리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문명의 일상성에 대한 시적 탐사와 그 안에 드리워진 묵시록적 분위기는 자본주의적 물신화가 필연적으로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후기산업사회로 지칭되는 90년대 이후 서정시에서 도시적 “일상성의 강화는 전시대를 이끌어왔던 거대이론의 붕괴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sup>16)</sup>이기도 하다. 이러한 묵시록적 세계 인식은 전망의 부재와 파국에의 불길한 공포감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도시체험의 묵시록적 상상력은 그로테스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교의 검은 철근에 매달려 / 다리를 버둥거리던 너, / 깨진 블록처럼 투

16) 남진우, 「묵시록적 시대의 글쓰기」, 앞의 책, 56면 참조.

덜거리며 침을 뱉고 / 찌그러진 태양의 헬멧을 / 다시 눌러 쓴다. / 금이 간  
 두 눈을 깜박일 때마다 / 황색과 초록의 틈새로 흰 먼지의 불꽃이 피어나고 /  
 검은 원숭이때 자욱하게 물려간다.(이기성, 「1호선」 중에서)

인용 시는 지하철을 소재로 문명의 디스토피아적 전망, 즉 문명의 처참한  
 물골을 음산한 어조로 그려내고 있다. 지하철은 도시적 삶의 공간이동을 가  
 능케 하는 주요 수단이다. 지하철은 아파트나 백화점, 자동차와 같이 없어서  
 는 안 될 도시적 일상의 중요한 세목이다. 그것은 공간이동을 보장하는 물질  
 적 조건이면서, 동시에 도시적 삶과 경험의 기본적인 국면을 이루는 지배소  
 이다. 화자는 문명의 최첨단에서 문명의 잔해, 거대한 욕망의 탐식이 내뿜은  
 폐허의 부산물을 투시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은 과부하에 걸려 “과열된 퓨즈  
 처럼 녹아내리”고, “육교의 검은 철근에 매달려 / 다리를 버둥거리”는 지하  
 철 1호선에서 화자는 문명의 디스토피아를 투시하는 것이다.

화자가 주시하는 도시는 악몽의 풍경과 흡사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인간  
 군상은 “검은 원숭이때”에 불과하다. 그곳에서 태양은 “휘어진 고압선 너머  
 로 쿨룩 “기침을 하며” 떠오르고, “세상은 온통” “탄식처럼 거리를 점령한  
 원숭이때”의 “벌건 엉덩짝처럼 타오”른다. 이것은 다시 환경오염과 인간성  
 마멸 등속의 우리 주변에 상존하는 문명의 부정적 이미지들과 어울리면서  
 그로테스크한 악몽 속의 풍경을 연출한다. 보들레르의 ‘대낮에도 유령이 행  
 인들을 볼드느’ 망령의 도시처럼, 이 시에 그려진 도시도 “검은 원숭이때”가  
 사방에서 ‘유령’처럼 “킁킁거리며 튀어나”오고 “자욱하게 물려”가는 망령의  
 도시와 같아 공포스러운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공포스러운 전율은 “죽어 있  
 는 것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다는 모순”<sup>17)</sup>으로 인해 그것은 “악마적  
 이기도 하며 악마적인 것은 그 모습으로 유령적인 것”<sup>18)</sup>이기 때문이다. 즉  
 뚜렷한 형상과 이름, 경계나 정체성이 불분명한 비정상적 존재의 출현은 일  
 반적으로 혐오와 두려움, 공포의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17) 카를 로렌크란츠, 조정식 옮김, 앞의 책, 350면

18) 위의 책, 338면.

나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포옹과 빛나는 웃음이다.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냉정한 빌딩을 긴 칼로 내리치자 유리창이 깨어지고 노래가 튀어 나왔다. 끈적끈적한 리듬과 따뜻한 음색이 목을 휘감았고 뜨거운 눈물이 목을 타고 내렸다. …중략… 옆을 봐도 사람의 노래는 없었고 뒤를 보아도 사람의 온기(溫氣)는 어디에도 없었다. 앞에는 노래하지 않는 또다른 철골과 유리창의 빌딩이 버티고 서 있었다. ‘악’ 하고 소리를 쳐보지만 메아리마저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심장에 꽂힌다. 벚꽃잎들이 곱게 깔려진 골방 안에서 벽을 보고 돌아앉아 나는 모래보다 작은 점으로 변해간다.(김경수, 「화가 몽크의 고백 1-도시인의 절규 -」 중에서)

몽롱한 환청과 착란 속에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이 분사하는 인용 시의 화자는 도시 공간에 갇혀 자기를 상실한 자신을 발견하고 절규한다. 화자는 철골과 유리로 밀폐된 도시 공간에 갇힌 상황이다. 화자가 처한 상황은 역설적이고 출구 없이 유폐된 극단의 상황이다. 화자가 처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도시의 권력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도시인의 초상과 무의미하며 부조리한 도시공간 속 현대인의 실존이다. 이를테면 시의 제목이 암시하듯 에드발트 몽크의 그림 「비명」을 연상하게 하는데, 몽크의 그림이 그렇듯이 이 시도 실존적 불안감과 불길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 몽크의 그림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아의 실존적 불안과 공포를 화자는 그대로 전사시켜 놓고 있다. 또한 부제가 말하고 있듯이 거대한 빌딩 숲에 갇힌 “도시인의 절규”, 요컨대 도시인의 소외된 실존적 상황 내지는 심리적 공황을 묘사하고 있다. 몽크의 그림이 극도의 자기 소외와 공포와 불안 등을 표현했다면, 이 시도 마찬가지로 공포와 불안을 도시공간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즉 실존적 위기에 처한 정체성의 극단적인 경우를 불길하게 환기하고 있다.

화자는 “강철과 유리로 지어진 냉정한 빌딩”의 도시에서 “따뜻한 포옹과 빛나는 웃음”을 바라지만 “사람의 온기(溫氣)는 어디에도 없”는 비정함을 노래한다. 화자는 “철골과 유리창의 빌딩”에 갇힌 자아를 발견하고는 “‘악’ 하고 소리를 쳐보지만 메아리마저 화살이 되어 되돌아와 심장에 꽂”히는 공포를 경험한다. 그러한 심리적 경험에 의하여 화자는 “나는 모래보다 작은 점”

으로 무의미하게 변해간다. 이와 같은 자아의 상실과 왜소화는 도시적 삶의 고독과 소외의 경험으로 볼 수 있다. “골방 안에서 벽을 보고 돌아앉아 나는 모래보다 작은 점으로 변해간다.”는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자기 소외와 상실에서 비롯한다. 화자는 “따뜻한 포옹과 빛나는 웃음”을 희망하지만 그 희망을 받아들이기에 빌딩의 철골은 너무 강하며, 유리창은 반사의 빛이 너무 세다. 그 불모성에 화자는 경악한다.

이와 같은 비인간화와 물신주의의 세계에서 느끼는 실존적 위기와 소외감은 존재를 자각하는 동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인간성을 자각케 하는 소외감은 그렇기 때문에 물신화된 세계에 대한 저항의 양식으로 자리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상품 논리와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지고 사물화된 존재이기를 거부하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볼 때 산업자본주의 도시문명에서 부정성을 드러내는 방법으로서 그로테스크는 시의 한 전형을 이루는 것이다. 현대시에서 그로테스크는 현실 세계의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 수법으로서, 이 부정성은 산업사회와 도시문명의 비인간적인 물신화, 그리고 문명에 대한 맹목적 신앙에 대한 인간적인 반성적 자각이며 저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 5. 맺음말

탈근대의 도시문명은 현대적인 삶과 의식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자본주의의 무의식 세계로의 침투가 가속화되고, 고도의 산업사회로 접어든 현대의 도시와 문명은 인간의 삶과 의식을 규정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다. 현대인의 삶은 대개 문명의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한 도시문명의 문제에 대해서 시는 민감하고 전위적인 반응을 보여준다. 문학은 인간이 처한 존재론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응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라 할 때, 전지구화 된 자본주의와 이것이 배태한 탈근대의 도시문명의 재현 의식은 상부구조를 이루는 시를 이해하는 데 일정한 준거틀을 제공해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90년대 이후 한국 시문학이 도시문명을 재현하는 의식 양상을 그로테스크의 관점에서 거칠게나마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도시문명의 부정성을 재현하는 주요한 방법이 그로테스크의 미학이 지닌 여러 특징적 자질들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스꽝스럽고 괴상하며 기형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 소외된 세계에서 펼쳐지는 부조리한 유희, 환상적이고 낯선 세계, 이질적인 것들의 결합과 충돌과 긴장,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원리의 이미지들은 묵시록적인 도시문명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시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로테스크는 문명화된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원칙의 이데올로기와 삶의 지배적 양식에 대한 미시적 관찰과 비판, 부정과 반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은 현실원칙과 기존질서의 정상성에 대한 비판과 저항, 위반과 전복, 도발과 위악의 상상력을 동반한다.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 공간 속에서 견자(見者)로서 시인의 위반과 탈주, 저항과 전복의 사유는 지금 이곳의 삶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이의 비판적으로 인식을 통한 또 다른 전망을 내다보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온성은 도시문명을 지배하는 물질과 기호의 현란함에 내재한 욕망과 미시권력의 작동을 엿보고, 이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 이곳의 부정성을 폭로하고 다른 현실을 전망하는 세계 변형의 욕망에서 비롯한다.

그로테스크에 대한 관심은 탈근대의 사회 문화적이며 지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표현하는 데 유효한 장치이자 수법이다. 그로테스크의 특징적 효과는 그것이 야기하는 낯설고 돌연한 충격이다. 돌연한 충격은 독자의 독서행위를 당황스럽게 만들어 독서를 지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익숙한 세계관을 뒤 흔들며 세계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과의 거리를 확보하게 한다. 이것은 때로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공격의 무기로 사용된다. 그로테스크가 지닌 소외와 분열과 공포, 일상적 질서의 변형과 왜곡과 과장의 기능은 그것이 풍자와 아이러니의 측면에서 결부되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고정적인 규범, 또는 관념을 붕괴시킴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부정하고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즉 그로테스크는 도시문명의 현실원

척이 갖는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정확히 묘사하고 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미적 기능을 발휘한다.

본고는 그로테스크 미학이 근본적으로 함유한 추(醜)의 미학을 통해 탈근대 도시문명의 모순과 문제점을 예리하게 직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로테스크는 탈근대 도시문명의 모순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수사적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즉 그로테스크는 비정상적이며 왜곡된 현실을 강요받는 현대적 인간과 삶의 모순을 탄핵하기 위한 미학적 전략이다. 그로테스크가 포함하고 있는 추의 미학은 미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현실 세계에 대한 부정의 정신을 대변한다. 이는 기왕에 긍정적으로 인식되었던 미의 영역을 전복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표방하기 위한 시적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는 탈근대의 도시문명이 배제한 부정성을 지각하고 이를 비판하려는 하나의 시대정신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은숙, 「서정주의 『질마재 神話』에 나타나는 그로테스크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4.
- 강경희, 「1930년대 현대시의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5.
- 김용직, 「극렬시학의 세계-이상론」, 『현대시』, 한국문연, 1992, 6~8.
- 남진우, 「목시록적 시대의 글쓰기」, 『신성한 숲』, 민음사, 1995.
- 몸문화연구소, 『그로테스크의 몸』, 쿠북, 2010.
- 박슬기, 「한국 전후시의 그로테스크 시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서준섭, 「한국현대시와 자본주의」, 『감각의 뒤편』, 문학과지성사, 1995.
- 이윤숙, 「이상 시의 변형세계 연구」,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창우, 『그로테스크의 정치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전영주, 「한국 현대시의 그로테스크 미학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조용복, 「공포체험의 시적 변용과 그로테스크의 시」, 남송우·하상일 편, 『고석규 문학의 재조명』, 세종출판사, 2000.
- H. 르페브르, 박정자 역, 『현대세계의 일상성』, 세계일보사, 1990.
- J. 보드리야르, 이상을 옮김,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 J. 칠더스·G. 헨치, 황종연 역, 『현대문학·문화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8.
- K. 로젠크란츠, 조경식 역, 『추의 미학』, 나남, 2008.
- M. 바흐젠, 이덕형·최건형 역, 『프랑수와 라블레의 작품과 증세 및 르네상스의 민중문화』, 아카넷, 2004.
- P. 톱슨,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 서울대출판부, 1986.
- T. 아도르노, 홍승용 역,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4.
- V. 뵘로뵘,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 2010.
- W. 카이저, 이지혜 역, 『그로테스크』, 아모르문디, 2011.
- W. 벤야민, 이태동 역,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대하여」, 『문예비평과 이론』, 문예출판사, 1987.

【Abstracts】

**A Study on Reflection Consciousness of City Image in  
Contemporary Poetry**

— Focusing on Poetry Since the 90s & Grotesque Poetics —

kim, Hongjin

This paper considers the grotesque poetry in relation to the pathological phenomenon and negativity of city civilization. In short, since the 1990's, the aspect of consciousness appearing in the reappearance of city civilization has been illuminated from the perspective of grotesque poetry. Grotesque is an effective way to critically reveal the contradictions and misconceptions of reality. Negative Civilization Criticism of reality was understood as a violation of existing order, the dissolution of normality, and the prospect of a new world through the overthrow of the dominant reality principle.

The city of Grotesque reproduces the negative image of the post-modern city. This is an act in which the poetic subject critically recognizes the brilliant appearance of cities and civilizations and the dystopian prospect in the utopian fantasy. This behavior comes from the despair and frustration of death and fear, desire and anxiety, alienation and oppression, anti-humanism and objectification. This apocalyptic world view can be understood as a resistance to perceive the negativity of urban civilization and to seek for overcome while critically reflecting on it. This is a common aspect of poetry that perceives city and civilization as apocalyptic world and critically recognizes it.

The grotesque poetic perception and representation of post-modern urban civilization enables the microscopic observation, criticism, negation and reflection on the ideology of the reality principle that dominates everyday life and the dominant mode of life.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act of looking at another perspective through negative perception and critical perception of the present reality, accompanied by criticism of reality principle and normality of existing order, resistance, violation and abduction, imagination of provocation and wickedness. Because the fluoridation peeks into the workings of the micro-power that dominates the urban civilization and enables its negative perception and critical perception.

**Key word:** Grotesque, Postmodernity, City, Civilization, Negative perception, Desire, Corruption, Critical awareness, Apocalyptic world, Reflective reflection

이 논문은 2018년 2월 1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8년 3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